

일하는 삶 健康性에의 讚歌

- 심상대 단편 <나무꾼의 뜻>의 「鶴女說話」 패러디적 성격*

張 良 守**

차 례

- | | |
|----------------------------|---------------------------|
| I. 序論 | III. 맘 흘려 일하기 忌避에의 自省 촉구 |
| II. 「鶴女說話」 類話로서의 「나무꾼과 仙女」 | IV. 結論 |

I. 序 論

우리나라 조상 전래의 民譚 한 편을 패러디한 소설이 심상대의 단편 <나무꾼의 뜻>이다. 이 작품은 원천이 된 民譚 「나무꾼과 仙女」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어 흥미롭다.

심상대는 1960년 생으로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과를 중퇴한 신예작가다. 그는 1990년 『세계의 문학』 봄호에 <묘사총> <묵호를 아는가> <수채화 감상> 세편의 단편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나왔다. 이 글에서 다룬 <나무꾼의 뜻>은 1990년에 간행한 그의 작품집 「묵호를 아는가」에 실린 단편소설이다. 어떤 책의 편집자는 이 작품을 작가가 훼손된 우리의 민족성, 즉 국난 극복과 노

* 본 연구과제는 동의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로 연구되었습니다.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동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썼다고 하고 있는데,¹⁾ 사실은 국난 극복의 의지 같은 것은 이 작품의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노동정신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만이 뚜렷한 소설이다.

이 소설이 우리의 古說話를 패러디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국문학계에서는 우리 문학이 古代와 現代로 분기되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왔다. 이는 스스로 우리 문학의 전통성을 부정하는 태도로 하루 바삐 시정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의 우리 국문학계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전통성의 확인 또는 그 복원에의 노력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필자는 오늘의 한 젊은 작가가 우리의 古代文學를 원천 텍스트로 하여 한편의 現代小說을 썼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오늘의 정신생활에 그것을 계승하려는 作意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그런 한편으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 비생산적이고 耽樂을 일삼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데서도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 발견은 오늘날의 우리 문학의 앞날을 내다보고 그 방향을 가리키는데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쓰기로 했다. 연구의 방법론은 비교문학적인 것과 사회윤리주의적인 것에 의지했음을 附記해 둔다.

II. 「鵲女說話」類話로서의 「나무꾼과 仙女」

이 소설이 패러디하고 있는 것은 「金剛山 仙女 說話」²⁾ 「仙女와 나무꾼」³⁾ 「사슴을 구해 준 총각」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일반적으로 「나무꾼과 선녀」⁵⁾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民譚이다.

1) 최인훈 외, 「내가 흠친 소설」(갑인 출판사, 1991), p.226.

2)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乙酉文化社, 1954), pp.193-198.

3) 成著說, 「韓日民譚의 比較研究」(-潮閣, 1980), pp.126-147.

4) 任東權, 「韓國의 民譚」(瑞文堂, 1979), pp.124-126.

5) 崔仁鶴, 「韓國說話論」(螢雪出版社, 1982), pp.155-156.

이 民譚의 이야기는 서로 약간씩 틀리는 데가 있지만 대략 孫晉泰가 채록한⁶⁾ 다음과 같은, 비슷한 줄거리를 하고 있다.

옛날 노모와 단 둘이 살고 있던 한 나무꾼 총각이 砲手에게 쫓겨 온 노루 한 마리를 숨겨 살려 주었는데 노루는 총각이 仙女를 아내로 맞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총각은 노루가 시키는대로 山上(혹은 金剛山上)에 있는 못에 내려와 목욕을 하는 天女(혹은 八仙女)들 중 한 사람의 날개옷을 감추었다.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다. 그런데 子女 넷을 나올 때까지는 그 날개옷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노루의 말을 어기고 나무꾼은 어느 날 仙女에게 그 옷을 주어버렸다. 仙女는 그 옷을 입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天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나무꾼은 다시 노루가 가르쳐 주는대로 그 못에 가서, 하늘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바가지를 타고 昇天하여 妻子를 만났다. 그는 地上的 어머니가 그리워 잠깐이라도 만나고 오려고 天馬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어머니의 간곡한 권으로 팔죽(혹은 호박죽)을 먹다가 그것을 말의 등에 얹질러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다시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매일 하늘을 올려다 보고 올다가 죽었는데 사후에 수탉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수탉은 지붕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 보고 울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⁷⁾ 「Swan maiden tales(鵝女說話)」라고 부르는 것으로⁸⁾ 전세계에 널리 분포 되어 있다. 東洋의 경우 이 이야기는 日本 杵土·사할린·시베리아·滿洲·中國 山東半島에서 廣東地方·사이판·安南·필리핀·자바·보르네오諸島·韓國 등에 퍼져 전해지고 있다.

이 說話는 곳에 따라 仙女를 아내로 맞은 사람이 어부, 나무꾼 또는 사냥꾼으로 다르게 되어 있고 仙女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의 이야기들도 약간씩 다르다. 그것은 아마 이 설화가 제일 처음 간단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전파 과정에서 부분 부분 고쳐지고 보태어지고 빠뜨려지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6) 孫晉泰, loc. cit.

7) 이는 傳說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民譚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民譚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증거 없이 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 동양에서는 흔히 「白鳥少女傳說」, 「鳥女傳說」, 「羽女傳說」이라고 불리고 있다.

아닌가 한다.

우리 나라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나무꾼과 仙女」民譚은 바이칼湖 동편에 살고 있는 蒙古 부리아트(Buriats)族 계통의 것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說話는 다른 곳의 것보다 아주 간단하다. 어느날 부리아트 족의 한 사냥꾼이 예쁜 白鵲 세 마리가 호수에 내려와 깃을 벗어 놓고 여자로 변신하여 해엄을 치고 노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Esege Malan의 세 딸들이었다. 사냥꾼은 그 중 한 마리의 깃(羽)을 감추어 다시 새가 되지 못해 날아 가지 못하게 해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 아내로 삼았다. 둘 사이에 6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하루는 그 아내가 독한 燒酒를 빚어 남편이 취하게 한 다음 깃을 돌려 받았다. 그녀는 다시 鵲鳥가 되어 煙穴(smoke-hole)을 통해 날아갔다. 한 딸이 燒酒를 고고 있다 그 광경을 보고 鵲鳥의 다리를 잡았으나 끝내 날아가 버렸다. 딸의 손이 더러워 그에 잡힌 鵲鳥의 다리가 시커멓게 되었는데 그 뒤로 鵲鳥는 온몸이 흰데도 다리만은 검은 것이다. 사냥꾼 내외 사이에 난 자녀들은 자손을 퍼뜨리게 되어 그들은 부리아트 族의 시조가 되었다 한다. 이 傳說을 채록한 Curtin은 위에 등장하는 Esege Malan은 Father Bald Head 곧 Highest heaven itself로 「天神」이라고 하고 있다.⁹⁾

孫晉泰는 韓國의 「나무꾼과 仙女」이야기가 위의 부리아트族의 傳說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 논리적 근거를 韓國 說話에 있어서 仙女가 天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데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새가 天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리 說話라도 억지스러운 이야기인데 이는 부리아트族 說話에서의 굴뚝(煙穴)을 통해 하늘로 날아갔다는 이야기에서 온 것이란 것이다. 그는 부리아트族의 집, 蒙古包(혹은 穹廬) · 춤(choom=天幕型 집) · 累木型 집 · 半地下型 움집 등에는 모두 「屋頂에 採光 겸 放煙의 開戶」가 있었다고 한다. 곧 부리아트족의 집은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게 할 겸 집 안의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천정을 뚫어 구멍을 내 놓았는데 孫晉泰에 의하면 우리 나라 古代의 집 역시 同型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로 미루어 우리의 說

9) Jeremiah Curtin, A Journey in Southern Siberia, New York, 1909, pp.98-99.
孫晉泰 loc.cit에서 재인용.

話는 부리아트族의 傳說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부리아트族의 것은 원시적인 것인데 비해 우리 나라의 것은 後世的인 것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¹⁰⁾ 이는 수궁이 가는 말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리아트族의 그와 같은 傳說은 우리 나라에 들어와 전파되면서 우리 民譚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바이칼과 같은 광활한 湖水가 없는 대신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仙女가 내려온 곳이 거기에 맞게 산 속에 있는 못(潭)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 나라에는 三國時代 이후 道敎가 들어와 神仙 · 仙女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鵲鳥가 仙女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 蒙古 쪽은 수렵이 성한 곳인 반면 韓國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 仙女를 아내로 맞는 사람이 우리들 누구나이기도 한 나무꾼으로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리아트族의 傳說은 仙女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 說話의 경우는 나무꾼이 뒤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아주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이 크게 다르다. 仙女가 하늘로 올라가는 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부리아트族 傳說의 경우 뿐이고 다른 곳의 경우에는 약간씩 차이가 나면서도 후일담이 붙어 있는데 이 점에서도 부리아트族의 傳說이 東北 · 東南아시아의 類話의 발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우리의 「나무꾼과 仙女」 說話는 아시아 지역의 類話들과 같은 점이 많으면서도 우리 것 특유의 성격을 보여 주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연구자는 韓國의 傳說에는 孝와 烈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등 지극히 교훈적인 면이 발견되는 바 이것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¹¹⁾ 이러한 경우는 傳說 뿐 아니라 民譚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나무꾼과 仙女」에서도 그러한 면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먼저 孝의 경우, 우리 說話에 등장하는 나무꾼은 하늘로 올라가 妻子를 만나 그곳에서 살게 되지만 그 어머니가 그리워 다시 땅으로 내려 왔다가 영영 하늘로 되돌아 가지 못하고 있다. 韓國의 「나무꾼과 仙女」 民譚에서 이 이야기는

10) 孫晉泰, loc. cit.

11) 崔仁鶴, op. cit., p.67.

그것이 빠져버리면 전체 줄거리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이른바 限定話素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아시아의, 바로 인접국인 中國·日本의 類話에서는 이런 話素가 발견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 說話에서 孝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성기열은 이 話素가 妻子보다도 孝母를 섬겨야 한다는 孝行的 觀念에서 우려나온 것이며 다른 민족이나 부족들의 이야기와 구별지을 수 있는 뚜렷한 韓國的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¹²⁾

또 「나무꾼과 仙女」 民譚에는 가족에 대한 강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이웃 나라들에 전하고 있는 類話에서는 찾기 힘든 특성이다. 우리의 「나무꾼과 仙女」 民譚에는 나무꾼 내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3명으로 고정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의 類話와 상이한 숫자다. 예를 들면 부리아트族의 경우는 6명이고 中國은 2명, 日本은 1~3명, 뉴헤브리데스島·보르네오·安南은 1명으로 되어 있다. 한 연구자는 韓國民譚에서의 「3」이란 숫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韓國人은 전통적으로 「3」이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쓰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사슴이 나무꾼에게 한, 넷 이상의 자녀를 낳기 전에는 선녀에게 짓을 보이지 말라고 한 戒言과 관련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곧 자녀가 셋일 때는 한 아이는 등에 업고 두 아이는 한 팔에 한 아이씩 안고 올라 갈 수 있지만 넷이면 아이가 너무 많아 다 데리고 갈 수 없어 단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仙女가 하늘로 가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¹³⁾ 이는 납득할만한 논리라 할 것이다. 위의 해석은 곧 仙女가 아무리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도 어느 한 자식이라도 떼어 두고는 가지 못할 강한 母性愛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仙女의 母性愛는 곧 이야기를 하거나 들으면서 살아온 우리네 여인들의 母性愛 그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나무꾼과 仙女」에서의 인근 지역 類話에서와 다른 강한 母性愛는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이 된다. 韓國民譚의 경우 뉴헤브리데스와 함께 仙女가 자녀들

12) 성기열, 「민담의 한국화 변이 양상」, 『구비문학』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 연구실, 1980), pp.46-47.

13) 성기열, op. cit., p.137.

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반면 日本의 類話 중 그 原型이라 하는 「伊香刀美」 說話를 비롯하여 安南·中國·보르네오·蒙古의 類話에서는 모두 버려두고 가버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그 어머니를 못가게 하겠다고, 또는 따라 가겠다고 다리를 잡고 매달리는 딸을 기어이 떼어버리고 아주 가버리고 있는 蒙古型의 悲情性和 대조했을 때 韓國型은 그 母心의 아름다움이 한결 돋보인다 할 것이다.

그밖에도 「나무꾼과 선녀」 民譚에는 仙女의 그 남편과 媿母에 대한, 다른 나라의 類話에서와 다른 애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아 하늘로 올라간 仙女는 그녀를 찾아 올라온 그 남편을 따듯이 맞이하고, 그가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자 가서 만나 보고 오게 해준다.

이는 달아나는 선녀를 잡으려고 뒤쫓아 오는 남편과 그가 오지 못하게 하려는 仙女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中國型, 仙女가 자신이 하늘나라로 뻗어 있는 식물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남편이 그 아래 뿌리에 매달려 따라오자 도끼로 그 뿌리를 쳐 땅으로 떨어뜨려버리고 있는 뉴헤브리데스型和 맞대어 보면 우리 說話에서의 가족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韓國 說話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교훈적인 면은 거기에 報恩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이다. 「나무꾼과 仙女」 民譚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 民譚에는 노루(또는 사슴)가 거둬 은혜를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⁴⁾ 곧 나무꾼의 덕에 목숨을 구한 노루는 나무꾼에게 선녀를 아내로 맞을 피를 가르쳐 주고 仙女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을 때도 뒤따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日本에 전파되고 있는 類話도 비슷하나 日本의 경우는 仙女를 얻게 만 해줄 뿐 하늘로 따라 올라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다. 이 점에서 보아 韓國型이 報恩譚 모티프의 성격이 더 강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鵲鳥傳説」 類話로서의 우리 나라 民譚 「나무꾼과 선녀」의 특성을

14) 우리 說話에는 까치·호랑이·물고기 등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많은데 노루의 경우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냥꾼에게 쫓긴 노루를 구해 준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해 주었다는 《東稗洛誦》에 실려 있는 「醉琴朴彭年子孫洛東江下流立案而致富」 같은 것이다.

살펴 보았거니와 이제 이 說話가 소설 <나무꾼의 뜻>에 어떻게 수용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환 되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땀 흘려 일하기 忌避에의 自省 촉구

소설 <나무꾼의 뜻>은 民譚 「나무꾼과 仙女」의 줄거리를 거의 그대로 따오고 있다. 나무꾼이 사슴을 구해주고, 사슴이 그로 하여금 仙女를 아내로 맞게 하는 데서부터 나무꾼이 하늘로 올라가버린 仙女를 뒤따라가 만나게 되고 그 어머니가 그리워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몇 가지 세세한 면을 빼면 별 차이가 없다. 이 소설은 그 民譚의 교훈적 성격도 거의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 중 孝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부분은 오히려 소설 쪽이 더 강화 되어 있다.

우선은 산골짜기 오막살이집에서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나이 많은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어두워졌다. 두레박을 타고 올라올 때에 미처 사정 얘기도 드리지 못 했던 터라, 어서 어머니를 뵙고만 싶은 생각이 불꽃 같이 타올랐다. 나무꾼은 그런 자신의 속을 아내에게 털어 놓았다.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선녀의 마음도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었다.

라고 해 아들 뿐 아니라 며느리까지 그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가족 구성원끼리의 정도 「나무꾼과 仙女」의 경우 못지 않게 두터운 것으로 나타나 있다. 仙女는 하늘로 올라갈 때도 세 자녀를 모두 데리고 올라가고 남편이 어머니와 地上 세계를 그리워하자 民譚에서 와 같이 남편만 다녀 오게 하지 않고 다 같이 내려 오고 있다. 이 소설 곳곳에는姑婦 간, 할머니와 손자녀들 간의 애정이 비쳐져 있다.

動物報恩 모티프로도 소설 속에 그대로 살아 있다. 나무꾼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슴은 그에게 아내를 맞게 해주고 또 하늘로 올라간 仙女를 찾아 올라가게 해준다. 작가는 「제 은혜 갚기에 눈이 어두워진」 사슴이라고 해 報恩의 교훈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소설의 구성도 강한 說話性을 띠고 있다. 현대소설의 경우 대체로 그 구

성이 복합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아주 단순화 되어 있다. 다만 民譚에서는 나무꾼이 사슴을 구해 주는 데서 그가 수탉이 되어 울고 있는 데까지 달력적 시간 순서(calendar order)를 따르는 時間順行的 進行을 하고 있으나 <나무꾼의 뜻>에서는 약간 달라져 있다. 이 소설은 나무꾼이 天上 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출발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가 그곳에 와서 살게 된 경위를 들려준 다음 지상으로 되돌아와 사는 것으로 끝 맺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과거-현재의 시간 구조를 보여 주고 있어 民譚에서와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러한 면에서의 테크닉은 최대한 절제 되어 이 소설의 구성은 한편의 동화를 들을 때와 같은 쉬운 이야기 進行으로 되어 있다.

民譚에서와 같이 「옛날에 옛날에 -」로 시작해서 「그래 잘 살았단다」로 끝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서술구조도 상당히 說話調의 그것을 취하고 있다.

우선 어휘부터 그러해서 이 소설에서는 「두레박」 「화전불이」 「너덜경」 「돈꾸러미」 「오막살이」 「옹우리」 「허리춤」 같은 과거에 일상어로 썼으나 오늘날에는 잘 쓰지 않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 擬古的(archaic)인 어휘 구사는 이 소설이 고풍스런 맛을 가지게 하면서 이 역시 說話 냄새가 짙게 풍기게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아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소설의 語調도 民譚의 그것을 크게 닮고 있다.

다음날 나무꾼은, 나무고 지랄이고 풀이고 지랄이고 다 팽개치고 사슴이 일러준 못을 찾아가 못가의 수풀 뒤에 몸을 숨긴채 달 뜨기만을 학수고대했다.

그러고 그러고 얼마가 지난 뒤, 나무꾼은 달덩이를 삼킨 듯 회회낙낙한 표정으로 고이춤을 여미며 나무 아래서 일어났다.

또 說話 口演者는 흔히 이야기 중간중간에 客答으로 자기 나름의 철학을 끼워 넣는데 <나무꾼과 仙女>에서는 그러한 면도 보인다.

남자의 모든 불행은 여자와 술이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온다. 나무꾼의 경우도 그랬다.

나무꾼이 술이 취해 날개옷을 주어버리는 바람에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대목에서 한 위와 같은 人生論 一席이 바로 그런 것으로 이 또한 이 소설이 우리의 옛 說話를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것이다.

民譚이 神話·傳說과 다른 점은 포괄적이든 개별적이든 간에 그 이야기를 뒷받침 해주는 증거가 없다는 것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民譚은 황당무제한 경우가 흔한데 그것이 재미있기만 하면 아무도 이를 탓하지 않는다. 그것을 듣는 쪽이 그 허황함을 지적하거나 논리성을 따지고 들 경우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야기 아니가」라는 한 마디로 무시해 버리고 만다. <나무꾼의 뜻>은 이 점에서도 民譚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하느님이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자신의 청을 거절했을 때 나무꾼이 행사하는 폭력을 보여 주고 있는 장면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나무꾼은 호위군사를 뿌리치고 범 같이 달려들어 옥좌에 앉아 있는 하느님의 멍살을 거머쥐었다. 눈깜짝할 사이였다. 나무꾼은 멍살을 틀어쥔 손을 어깨 뒤로 돌려, 마치 보릿단을 땃돌에 후려치듯 하느님을 어전 바다에 패대기쳤다. 하느님은 펄쩍, 바닥에 나자빠졌고, 하느님의 배에 올라탄 나무꾼은 억센 두 손으로 하느님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나무꾼은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행복을 받아내 용마를 타고 땅으로 내려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원시적 건강성에서 오는 신선감을 만끽할 수는 있으나 따지고 들면 어불성설의 이야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논리 이전에 民譚에서와 같은 無垢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모방의 측면, 유사성에서는 우리가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흔히 패러디의 기법을 구사하는 작가가 거기서 자신의 하고자 한 말을 하는 곳은 변환의 부분이다. <나무꾼의 뜻>에서도 경우는 마찬가지다. <나무꾼의 뜻>이 「나무꾼과 仙女」와 다른 면을 찾으려 들면 적지 않지만 별 의미가 없는 세세한 차이는 무시하고 중요한 면을 보면 ① 나무꾼이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내려 오려 한 동기 ② 땅으로 되돌아온 사람의 수 ③ 다시는 하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땅에서 살기로 한 이유 등 세가지

다. 간단히 말해서 民譚에서 나무꾼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동기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한가지 때문이었지만 이 소설에서는 그 위에 그에 못지 않는 또 하나가 더 있다. 곧 하늘나라에서 살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면은 모두 이 첫 번째 다른 점과 연관 된 것이다. 民譚에서는 나무꾼이 그 어머니만 만나보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심산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두고 혼자만 내려왔지만 소설에서는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결심이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를 데리고 내려 온다. 民譚에서는 나무꾼이 실수로 몸이 땅에 닿아 다시는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을 그려 울고 있지만 소설에서는 경우가 그와 반대다. 나무꾼은 하늘나라가 싫어서 그 장인 되는 하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끝에 기어이 가족을 이끌고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하늘나라로 되돌아 가려 하지 않고 있다.

그 뒤, 나무꾼과 선녀는 오래오래 그 산골짜기 오막살이집에서 살았다. 아침이면 일어나 일을 하고, 저녁이면 집에 들어와 잠을 자는, 그런 생활이었다. 오막살이집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나무꾼 뿐 아니라 그 일가는 하늘나라를 떠나 영원히 지상에서 살게 된 것을 더 없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왜 하늘나라를 마다하고 지상세계를 至上의 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중심사상, 곧 주제가 내면화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하늘나라와 지상 세계는 뚜렷한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무꾼과 선녀는 여느날과 다름 없이 대청마루에 나와 술상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여느날과 다름 없이」란 한마디에 함축 되어 있는 핵심적인 뜻은 나무꾼의 하늘나라에서의 생활이 아무 하는 일 없이 매일 술만 마시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술상도

나무꾼은 실눈을 뜬 채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순금젓가락을

들어 옥쟁반에 담긴 신선도 조각을 콧속 짙어대기도 하고 감로주병을 탱탱 두들기기도 하며, 술상 곁에 붙어 앉은 선녀에게 자꾸 되물었다.

고 한테서 입을 수 있듯, 더할 수 없이 호사스러운 것이다.

한편 그의 地上에서의 생활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먹고 산 음식도 「돌나물」, 「취나물」, 「호박죽」 같은 素朴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무꾼은 神仙들이 먹는 복숭아(神仙桃)도 하늘나라의 술(甘露酒)도 싫어 한다. 그가 먹고 싶어 애타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들이었다.

“이맘때면 어머니가, 그 왜, 호박죽을 쓸 텐데. 카아 …… 그 호박죽 …… 이봐, 자네는 그 참나물 생각이 안 나? 그 왜 싸싸움하기도 하고 고치하기도 하고 달그작작하기도 하고 매우롭한 게 …… .”

地上의 위와 같은 음식이 맛 있었던 것은 나무꾼이 땀 흘려 일한 끝에 그것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무꾼은 일하지 않고 사는 天上 생활에 견디지 못한 것이다. 나무꾼이 다시 땅으로 내려가 살게 해 달라고 조르자 하느님은 「이 살기 좋은 하늘나라」를 두고 굳이 내려가 살겠다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그 때 나무꾼은

“저는 그저, 힘이 남아 있는 대로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요. 저는 그저, 놀고 먹는 게 당채 싫어 죽겠습니다요. 제 몸은 가만히 앉아 짓가락질이나 하자는 몸이 아닙니다요.”

라고 해 하늘나라에서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일을 하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무꾼이 말한 「일」은 부귀와 명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것이 아닌, 인간의 몸을 움직여 땀을 흘려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하느님은 정 일이 하고 싶으면 서책을 읽어 사람 부리는 이치를 배우든가 이재를 익혀 재물을 모으는 기술을 기르든가 군영에 들어가 천군을 지휘하는 수장이 되라고 하지만 나무꾼은 책장이나 필력이고 돈꾸러미나 세는 일도, 싸움질하는 도끼질도 싫고 다만 남의 음식을 익혀주고 남의 잠자리를 덮혀

줄, 나무하기와 같은 그런 육체 노동만을 하려 하고 있다.

이 소설은 인간에 있어서 無爲徒食의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仙女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다.

남편의 닭달이 아니더라도 땅 위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은 요즘 들어 더욱 선녀의 가슴을 후벼다. 모두 아이들 때문이었다. 놀고 먹는 데 지친 아이들은 아주 반병신이 되어갔다. 하는 것이라곤 싸움질이고, 배워오는 것도 먹고, 놀고, 춤추고, 돌아 다니는 것 뿐이었다. 애써서 할 일이 없으니 아무 일에도 진지하지 못했고, 그러니 애정이라는 걸 알 턱이 없었다. 들볶는 남편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땅 위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게 요즘 선녀의 진정이었다.

위와 같은 인용문에는 근래 과잉한 돈과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부유층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한 寓言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위에서 살펴 본 것을 종합할 때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땀 흘려 일하는 데에 인간의 삶의 참다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때의 「일」은 좀 특별하게 쓰인 것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흔히 「일」은 「노동」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두 말 사이에는 상당한 뉘앙스가 있다. 한 평론문은 노동이란 말은 어딘지 모르게 임금 노동과 관련된 산업사회의 어둡고 황폐한 측면을 상기시키는 반면 일이란 말은 전통적인 韓國 사회의 밝고 건강한 측면을 상기시켜준다고 하고 있는데¹⁵⁾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일」이란 인간의 몸을 움직여서 하는 밝고 건강한 성격의 그것이다.

일은 인간 실존의 조건 자체로 이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 되게 해 주는 것 중의 하나다. 벌이나 개미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동물도 인간과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 가지 점에서 인간의 일과 다르다.

첫째 인간의 그것은 의식적이고 심사숙고 되어 행하는 자발적인 활동이나 동물의 그것은 본능적인 활동이고 둘째로 인간의 일은 자연을 변화시킴과 동

15) 홍정선, "노동문학의 정립을 위하여", 「민중, 노동 그리고 문학」(김병철·채광석 편), (지양사, 1985), p.143.

시에 그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기에 인간적인 의미가 있으나 동물의 활동은 단순히 자연만을 변화시키는 데 머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간은 일의 대상과 자신 사이에 도구와 기계를 개입시키는데 그 도구는 인간이 만든 것으로 반복사용을 위해 보관 되는 것이지만 동물은 자신의 신체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이와 같으므로 일이 인간 사회에 대해서 지니는 의미는 이미 고대의 사회철학에서부터 인식되고 있다. 기원전 2세기 스토아파 철학자 파나이티오스가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물은 인간의 노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¹⁶⁾ 고한 말이¹⁶⁾ 바로 그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존귀한 인간 활동으로만 생각 되어 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聖經 舊約은 「너희들은 이마에 땀흘리며 너희들의 빵을 벌게 되리라, 「고된 일을 함으로써만 너희들은 땅으로부터 너희들의 양식을 얻게 되리라」고 해 일을 神에 대한 인간의 불복종의 죄로 인한 저주와 천벌의 결과라고 하고 있다. 곧 일이란 죄과에 대한 벌이자 代贖의 수단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이란 단어는 고문도구를 가리키는 라틴어 「tripalium」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¹⁷⁾ 우리는 여기서도 고대인들의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볼 수 있다.

꽤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는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우월하다는 풍조가 있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몇 천년 전부터 육체를 움직여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숭고하게 간주 되어 왔다 한다.¹⁸⁾ 육체를 움직여 일하는 것을 경시하는 풍조는 현대로 오면서 더욱 심화되어 온 것 같다. 노동의 사회적 분화로 생산물의 교환 곧 상업이 생겨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도구와 기계의 조작으로 쉽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힘을 써서 일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쥘리아르는 70년대에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16) 헬무트 슈나이더, 「勞動의 歷史(韓貞淑 譯)」(한길사, 1983), p.12.

17) 마리 크리스틴부르그, 「인간의 노동(문재은 옮김)」(도서출판 예하, 1989), p.10.

18) 광민사 편집부 편역, 「노동의 철학」(광민사, 1981), pp.19-20.

못해 불안해 하면서도 노동과 노동이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가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 되고 있고 역설적으로 「노동에 대한 반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¹⁹⁾

그러한 풍조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70년대 이후 사회구조가 선진 산업사회의 그것으로 개편 되어 가면서 땀흘려 일하기를 싫어 하는 풍조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날 한밤 중 달빛 아래서 밭을 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못 잊어 하고 있는²⁰⁾ 작가는 이 소설로 우리 사회의 땀과 일 忌避 풍조에 대해 自省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현대인은 문명 자체의 역설적 산물로 문명화 된 자아와 그것을 거부하고 변형시키려는 욕망 사이의 상호작용 사이에서 원시상태 혹은 문명 이전의의 향수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²¹⁾ 우리는 이 소설에서도 그와 같은 原始主義의 인상을 접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농경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IV. 結 論

우리 나라의 「나무꾼과 仙女」 民譚은 바이칼 湖 동쪽 蒙古 부리아트 族들의 「白鵲(백조)傳說」을 원천으로 한 것이다. 우리의 이 民譚은 아시아 일대에 퍼져 전하는 類話에 비해 孝誠이 강조되고 가족 간의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다.

심상대의 단편 <나무꾼의 뜻>은 바로 그러한 면을 이어받은 패러디 소설이다. 곧 이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하늘 나라를 마다하고 地上의 그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고 있어 孝 觀念이 강조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도 나무꾼에 의

19) 마리크리스틴 무르그, op. cit., p.9에서 재인용.

20) 심상대, 「목호를 아는가」(민음사, 1994), p.287.

21) Michael Bell, 「原始主義(金聖坤 譯)」(서울대학교 出版部, 1985), pp.103-104.

해 목숨을 구한 사슴이 거둬 나무꾼을 돕고 있어 우리 民譚에서의 동물 報恩 모티프를 그대로 옮겨와 있다.

또 이 소설은 擬古의 어휘 구사, 說話 조의 서술구조도 「나무꾼과 仙女」 民譚을 크게 닮고 있다. 이상은 이 소설이 우리의 古說話를 원천으로 하여 쓰여 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측면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설 <나무꾼의 뜻>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작품이 원천 텍스트로부터 變換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소설의 變換의 부분은 나무꾼이 하늘나라에서 地上으로 내려오려 한 동기와 내려온 사람의 수, 地上에 내려온 후에 보여주는 주인공의 하늘나라와 地上 세계를 보는 視角 등이다. 곧 民譚에서는 나무꾼이 두고 온 어머니가 그리워만나보고 가려고 한 것이 그가 地上으로 내려 온 동기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어머니에의 그리움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하늘나라가 싫어서 地上으로 내려 오고 있다.

그리고 民譚에서는 나무꾼 혼자만 地上으로 내려오나 소설에서는 그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내려온다. 이 나무꾼 일가가 地上으로 내려온 것은 나니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地上에서 살려고 왔다는 것은 이 소설이 民譚과 크게 다른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꾼이 왜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싫어하고 地上에 내려와 살려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늘나라가 팍팍 일해 먹고 사는 곳이 아니어서 거기서는 참다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소설은 여기서 1970년대 이후 우리의 사회구조가 선진산업사회의 그것으로 개편되면서 자연스럽게 된 노동 기피의 병폐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우리들의 삶의 농경사회의 건강성에의 회귀의 필요성을 역설한 작품으로 값진 뜻을 지닌다 할 것이다.